

5.2.3. 어휘 학습 교안

5.2.3.1. 초급

초급 단계의 어휘 학습은 어휘의 기본 뜻을 익혀서 알맞게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p>수업 목표</p>	<p>1. '타다', '내리다'의 뜻과 교통수단 어휘를 익힌다. 2. '을/를 타다'와 '에서 내리다'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p>
<p>도입</p>	<p>◇ 초급에서는 어휘를 설명할 때 가능한 한 학생들이 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실물 자료 등을 이용해서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타다', '내리다'의 뜻을 설명하기 전에 교통수단 그림 카드나 PPT로 사진을 준비하여 보여 준다. 사람이 버스를 타고 있는 그림,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그림도 준비하면 좋다.</p>
<p>설명 및 연습</p>	<p>◇ 교통수단 PPT(비행기, 버스, 지하철, 택시)를 보여 주면서 단어를 따라 읽힌다. ◇ 단어를 읽힌 후에 “한국에 어떻게 왔어요?”라는 질문을 던져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라는 대답을 유도한다. 보통은 ‘타다’라는 단어의 의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자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혹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경우에는 교사가 “비행기? 수영? 걸어서?”와 같이 되물어서 “비행기”라는 대답이 나오게 한 후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라고 문장을 만들어 준다. ◇ 그림 자료를 보면서 ‘을/를 타다’를 연습시킨다. “비행기를 타요.”, “버스를 타요.”, “지하철을 타요.” 등. ◇ 그런 다음 또 어떤 교통수단에 ‘타다’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교통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세계 공통적인 것들이 많아서 한국어로 그 단어를 그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학생들이 손짓으로든 영어로든 대답을 잘한다. 가끔 ‘스키, 스케이트’와 같은 단어도 나오는데 확장 범위를 좁혀서 교통수단에 집중하여 가르치도록 한다. ◇ 기차(KTX),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배 등 교통수단 관련 단어를 확장해서 말하는 연습을 시킨다. ◇ 그 다음은 ‘타다’의 반대말이 ‘내리다’인 것을 알려 주고 ‘내리다’의 경우, ‘을/를’이 아닌 ‘에서’를 써서 ‘에서 내리다’임을 강조한다. ◇ (학교에 올 때) “집 앞에서 버스를 타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내려요.”와 같은 문장을 만들어 준 후 짝과 함께 자기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하는 연습을 시킨다. 교사가 ‘한국에서 캐나다, 부산에서 제주도, 학교에서 명동’과 같이 장소를 몇 개 지정해 주고 “○○에서 내려요.”를 연습시킨다. ◇ 마지막으로 PPT 자료를 보면서 문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리한다.</p>

5.2.3.2. 중급

중급 단계의 어휘 학습은 어휘 형성부의 비중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된다.

<p>수업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아래-'가 들어가는 다양한 표현을 읽힌다. 2. 사이시옷을 붙이는 규칙을 이해한다. 3. '위-/아래-'와 관련하여 '웃-'이 들어가는 표현을 이해한다.
<p>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윗사람'이라는 어휘를 학습할 때 우선 예문으로 '윗사람/아랫사람'이 들어간 문장으로 노출시킨다. ·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 윗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면 아랫사람들도 식사를 합니다. · 직장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시키는 일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p>설명 및 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문에서 제시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뜻을 학습자들에게 물어본다. ◇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준다. · 윗사람 : 자기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 아랫사람 : 자기보다 나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 ◇ 가정에서 학습자 자신에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누구인지 말해 보게 한다. ◇ '윗-/아랫-'이 들어가는 다양한 표현들을 제시한다.(그림 자료 제시) (예 : 윗면/아랫면, 윗물/아랫물, 윗부분/아랫부분) ◇ 이 중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을 제시하고 이 속담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한다. ◇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뜻'임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형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동생도 형을 따라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와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한다. ◇ '윗-/아랫-'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학습자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한다. ◇ 다음 단계로는 '위층/아래층, 위쪽/아래쪽'을 제시하고 이 어휘들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데, 위의 예들과 비교해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위-/아래-' 뒤에 거센소리([ㄱ, ㄷ, ㅍ])나 된소리([ㄱ, ㄷ, ㅍ])로 시작하는 말이 오면 사이시옷을 쓰지 않음을 설명한다. ◇ '위팔/아래팔, 위편/아래편' 등의 예를 보여 주고 규칙의 이해를 돕는 정도로만 하고 어휘의 자세한 의미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 다음 단계로는 '웃어른'을 '윗어른'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웃어른'은 '나이나 지위가 자기보다 높아서 모시는 어른'이라는 뜻인데, '아래어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윗어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웃어른'이라고 함을 소개한다. ◇ '웃-'이 들어가는 표현은 매우 한정적인데 한 예로 '웃돈' 정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웃돈'은 '본래의 값에 덧붙이는 돈'이라는 뜻을 설명하고, '구하기 힘든 물건이어서 원래 가격에 웃돈을 주고 사 왔다.'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5.2.3.3. 고급

고급 단계의 어휘 학습은 이미 구축된 어휘를 이용하여 어휘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의미 관계에 따른 유의어, 다의어, 동음이의어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p>수업 목표</p>	<p>1. 유의어 ‘섭섭하다, 아쉽다’의 여러 가지 뜻을 이해한다. 2. ‘섭섭하다, 아쉽다’의 사용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p>
<p>도입</p>	<p>◇ ‘섭섭하다, 아쉽다’가 비슷한 뜻으로 쓰인 예문을 제시하여 이 두 표현이 유의어라는 것을 노출시킨다. ·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게 돼서 정말 섭섭합니다. ·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다니 정말 아쉽습니다.</p>
<p>설명 및 연습</p>	<p>◇ 예문에서 제시된 ‘섭섭하다’와 ‘아쉽다’의 뜻을 학습자들에게 물어본다. ◇ 이 예문에서 사용된 ‘섭섭하다’와 ‘아쉽다’의 뜻은 모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이 두 표현이 유의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섭섭하다’가 다른 뜻으로 사용된 예문을 제시하고, 이번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물어본다. ·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 섭섭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다. ◇ ‘섭섭하다’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깝다’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 ‘섭섭하다’의 이 뜻과 비슷하게 쓰인 ‘아쉽다’가 들어간 예문을 제시한다. · 물려받은 땅을 남에게 팔기가 너무 아쉽다. ◇ 두 문장에서 ‘섭섭하다’와 ‘아쉽다’가 비슷한 의미로 쓰여서 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다음에는 ‘섭섭하다’와 ‘아쉽다’가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된 예문을 제시한다. · 어제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 다른 사람들은 다 초대하고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 주다니 너무 섭섭하다. ◇ 이 예문에서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한 다음, ‘기대어 어그러져서 불만스러워 약간 화가 난다’는 뜻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 나는 요새 돈이 아쉽다. · 그는 어려서부터 아쉬운 게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 이 예문에서 ‘아쉽다’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한 다음, ‘필요할 때 없거나 모자라서 안타깝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임을 알려 준다. ◇ ‘섭섭하다’와 ‘아쉽다’의 공통적인 뜻과 서로 다른 뜻에 대해 정리해서 설명해 준다. ◇ 학습자들에게 ‘섭섭하다’와 ‘아쉽다’가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고, 그 뜻을 함께 생각해 본다.</p>